

한국 현대소설을 통해 본 신명(神明)의 창조성과 다양체성 연구

-『선학동나그네』를 중심으로-

나채근* · 노상래**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신명
- III. 『선학동나그네』에 나타난 신명의 창조성
- IV. 『선학동나그네』에 나타난 신명의 다양체성
- V. 결론

【국문초록】

한국 고유의 정신적·정서적 문화인 풍류정신문화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고 있는 신명은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특이한 정서 형태로서 다른 민족의 정서와 차이화되면서 독특한 성격을 형성해왔다. 한국적 신명이란 한(恨)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고정된 틀과 질서에서 벗어나 내면적 생기를 표출하는 창조적 생명력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명이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들뢰즈의 다양체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우주의 구성요소인 현실적 존재자가 다수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일자를 생성해내는 창조적 성질이나, 서로 존재하는 현실태들이 우연적인 만남과 변형을 거쳐 또 다른 배치를 형성하는 다양체적 성질에서 우리는 신명의 특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창조적 특성과 다양체적 특성을 내재한 한국적 신명이 한국인의 독특한

* 제1저자,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외래교수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삶과 정서를 심도있게 그려내고 있는 『선학동나그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리꾼 여인의 삶을 통해 신명은 아무런 형식을 부여받지 않고 유목적인(nomad) 성격으로 물처럼 바람처럼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 즉 끊임없이 접속하는 주변의 대상과 내적 관계를 형성하고 영도화와 탈영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되어 가는 질료의 흐름이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적 신명이 시·공간을 이어오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대변하는 문화적 양태였음을 재조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주제어: 신명, 창조성, 다양체성, 현실적 존재자, 한국 현대소설

I. 서론

역사상 수많은 문화는 민족 주체마다 그 고유한 질료와 형상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문화를 구성해 온 어떤 민족도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듯이, 그들이 구현하는 문화 역시 고유한 독자성과 보편성을 지닌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¹⁾ 인간들이 지닌 문화는 ‘생노병사’나 ‘희노애락’이라는 공통된 삶의 여건에 기반하여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적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문화를 구성하는 구성체들은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구성체들이 경험하는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그 문화의 구체적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며 독자적인 특성을 띠기도 한다.²⁾ 이렇게 문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된 두 가지 특성

1) 손수건의 무늬를 만드는 힘들의 요소는 그 하나하나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어느 한 요소가 빠지면 손수건 전체의 무늬 모양은 바뀌게 된다. 이는 힘 사이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심은 어디에도 있다는 의미로서 지구상의 어떤 문화도 모두 중심이 될 수 있는 존재 가치를 지니고 각각의 힘의 균형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

인 문화적 보편성과 특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현재성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가 지니는 보편적 특성과 구체적 특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서와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풍류정신문화가 있다. 풍류정신문화는 속성상 한국 고유의 무교를 비롯하여 유교·불교·도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³⁾ 그러나 풍류정신문화는 다른 종교와 달리 통일된 교리와 제도로서의 위상을 구성하지 않았다. 풍류정신문화는 내부적으로 지니는 탈구조적인 속성으로 인해 외관상 뚜렷한 구조나 패턴을 재현시키지 않고 잠재태의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달리 말하면 풍류정신문화는 체계적·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현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재적인 창조성으로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면서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풍류정신문화의 대표적 속성 중 하나가 신명(神明)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이란 고정된 틀과 질서에 억눌려 있던 느낌에서 벗어나 내면적 생기를 표출하며 새롭게 생성되는 삶의 창조적 생명력을 의미한다. 고대 부족국가에서 신명의 역할은 제천의식의 춤과 노래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잠재되어 억눌려있던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소통과 융합을 이루는 창조적 에너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이에 대해 “화이트헤드는 미국 뉴욕의 예를 들어, 뉴욕은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들 도시 상호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뉴욕 자체의 성격과 특성이 규정된다는 ‘사이성(betweenness)’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Whitehead, Alfred N., *Adventure of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p.230.

3) “김범부는 풍류정신이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숭배하는 무격신앙 즉 ‘샤머니즘(shamanism)’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범부, 풍류정신과 신라문화, 『한국사상총서』, 한국사상연구회, 서울: 경인문화사, 1973, p.228.

이러한 신명의 내재적 특성이 현대 서양철학자 화이트헤드의 창조성(creativity) 개념이나 들뢰즈의 다양체(multiplicity)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주의 구성 요소인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y)가 다수로 존재하면서 일자를 새롭게 생성하는 창조적 성질이나, 서로 존재하는 현실태들이 우연적인 만남과 변형을 거쳐 또 다른 배치를 형성하는 다양체적 성질에서 우리는 신명의 특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신명이 내재적으로 지닌 특성이 화이트헤드의 창조적 특성과 들뢰즈의 다양체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이 한국적 신명과 한을 심도있게 표현하고 있는 현대소설 『선학동나그네』(1979)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I. 풍류정신문화의 신명

풍류정신문화에 대한 기록은 3세기 한나라 진수의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으로 거슬러 오른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여러 부족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하였는데, 고대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소도(蘇塗)’ 등에서 거행했던 제천의식이 여기에 해당된다.⁴⁾ 당시 제천의식은 한마디로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인생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가무강신 소원성취(歌舞降神 所願成就)’란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부족들은 노래와 춤으로 신과 인간이 교감하는 의식을 거행

4)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 문화연구』 제1집, 한민족문화학회, 1996, p.227.

하면서 현세에서의 풍요로운 생산과 안녕을 기원하였는데 이는 무교(巫敎)의 특징⁵⁾으로서 지금도 민간신앙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巫)는 풍(風)이 의미하는 하늘과 류(流)가 의미하는 땅을 매개하는 의미를 지닌다. 천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무교는 땅위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염원과 사고를 하늘에 중재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한계 즉, 생사의 순환구조를 넘어 인간의 영원 회귀의 염원을 회귀하는 성격을 지녔다. 이는 성숙을 구분짓지 않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교의 신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닌,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며 존재하는 신이다. 즉 고대 한국인들은 풍류를 통해 현실적인 삶을 극복하고 하늘과 자연과 조화됨으로써 이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제정일치시대에 제천의식을 주관했던 제사장은 신의 강령을 받아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겪으며神通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 ‘신이 내렸다’고 표현한다. 신명의 한자적 표현은 천지의 신기한 기운을 가졌다라는 의미의 신명(神明)이지만 실제로 신명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흥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신명은 우리의 고유어인 ‘신바람’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바람은 기의 흐름이고 흥의 확산이다. 신바람은 평상시에는 인간 정서의 내면에 잠재해 있지만 어떤 외부적 계기나 여건이 주어지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다.⁶⁾

5) “최준식은 무교는 춤과 노래라는 예술장르를 통해서 얻어낸 엑스터시에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종교라고 말한다.”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소나무, 2002, p.37.

6) 들뢰즈(G. Deleuze)는 이를 특이성(singularity)과 강도(intensity)로 표현한다. 특이성이란 잠재태 상태의 어떤 특정 개체가 현실태로 구체화되기 바로 직전 미세하게 진동하는 순간의 상태를 말한다. 이때 잠재태적 상황에서 요동하고 있는 특이성에 작용하여 특정한 현실태로 결정되도록 만드는 힘이 강도이다. 이렇게 잠재태가 현실

신바람을 일으키는 신명은 삶을 새롭고 역동적으로 만든다. 신명이란 고정된 느낌과 정서의 구조를 허물고 잠재되어 있던 생기를 드러내어 새로운 삶의 창조적 생명력을 구성한다. 우리는 신명나는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 놀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정월대보름 밤 풍년을 기원하는 강강수월래는 노래와 춤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와 느낌을 고양시킨다. 달을 상징하는 강강수월래 놀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리듬의 빠르기는 진강강수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가운데 노래와 춤동작의 발디딤은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다양한 원을 생성하며 풀고 맺는 춤동작은 정지와 유동의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며 신명의 효과를 표현해 내고 있다.⁷⁾

신명의 대표적인 예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보인 한국인들의 응원 모습과 요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는 한류 현상이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랐던 사건보다 세계인이 더 놀란 것은 한국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한국 축구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생기에 찬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정과 감동의 에너지는 신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 특히 요즘의 방탄소년단(BTS) 신드롬 역시 역동적인 신명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한국 가수의 노래와 춤에 맞추어 함께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기쁨과 감동을 표출하며 신명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태로 결정되는 상태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신명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생성시키는 강도와 관련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7) 김현희 『한, 셋김, 신명, 흰 그늘』, 『민족미학』, 제6집, 민족미학회, 2007, p.48.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열정과 기쁨의 요소를 지닌 신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되는 한국적 신명만이 지니는 역동적 에너지와 그 강도상의 차이가 무엇인 가라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의문의 답을 한국적인 독특한 정서인 ‘한(恨)’에서 찾고자 한다.

흔히들 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제도적·신분적으로 많은 한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불가항력적인 피해나 억압을 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울한 감정을 지니거나, 여유롭고 혜택 받는 주변인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행복이 결핍되었다고 느꼈을 때 한을 형성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심각한 과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불효를 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을 때 한을 발생시킨다. 한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무관하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결과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인들에게 한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한국만이 지녔던 시대적·제도적 억압이라는 여건 외에 또 다른 독특한 정서적 특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 정서적 특성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인들은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것을 특히 싫어하는”⁹⁾ 민족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존감이 무시당했을 때이다.

항상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시각에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무시와 차별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는 한국인 특유의 한으로 작용하

8) 최상진,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제 1집, 1991, pp.345-346 참조.

9) 한민·한성열, 『신명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09, p.45.

게 되는 것이다. 한이 깊어지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명의 강도는 더해질 수 있다.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의 튀어오르는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된다. 한과 신명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한과 신명은 둘이 아니라(不二) 하나인 것이다.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인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자기 가치감에 상처를 주는 것은 불안정한 무의식 속에 한의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상적인 자기 가치감이 현실 속에서 괴리되고 파괴되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쉽지 않다. 손상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상황에서 요구된 것이 신명이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한과 슬픔을 동반한 자유분방함과 역동적 생명력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은 신명 속에 한국인만이 지니는 상처받은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고픈 열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명이 다른 민족들 보다 한국인들에게 각별하고 특이한(singular) 정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지닌 표상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 깊숙하게 자리한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집착에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고유한 자기 가치감의 영역이 파괴되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욕구와 불안감은 한국인들에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욕구와 불안의 정서적 간극이 더 커질수록 붙들고 싶은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과 회복하고픈 욕구는 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인 한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속성으로 차이화하고 반복시켜 온¹⁰⁾ 민족이다. 한국적 신명이 타국

10) 들뢰즈에게 “차이’란 사물이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이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다.”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1994, p.401 참조; 또한 들뢰즈에게 ‘반복’이란 “사물이나 대상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

의 신명과 다른 특이성을 지니는 것 역시 이러한 차이와 반복이 내재적인 대비¹¹⁾와 강도를 통해서 매번 새로운 창조성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신명의 특이성은 신명의 창조적 속성과 다양체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강렬하고 차별화된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동안 신명은 다른 민족의 신명과 차이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창조적 특성을 새롭게 해왔고 끊임없이 대상과 마주하면서 사건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신명의 특성이 실재론적 의미에서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들뢰즈의 다양체성과 관련하여 『선학동나그네』에서 어떠한 양태로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선학동나그네』에 나타난 신명의 창조성

구조화되고 공간화된 정태적 여건에서 벗어나 내면적 생기를 표출하며 삶의 창조적 생명력을 생성해내는 한국적 신명은, 서구 실체(substance) 철학의 존재론적 절대성이나 불변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동 과정(process) 속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변화를 강조한 철학자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실재론적 창조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물질은 별개의 상태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향을

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주체의 느낌이나 정신에 연속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데, 가령 모네의 루앙성당은 모네에게 언제나 다른 모습 다른 느낌들로 반복된다. 이런 점에서 반복은 차이의 다른 이름이며 차이를 포함하는 반복이다.” 이진경, 1994, p.405 참조.

11)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대비란 어떤 하나의 여건을 구성하는 다수의 요소들이 패턴을 이루며 생성해가는 통일성이다.” 화이트헤드, A. N., 『과정과 실제』, 오영환 옮김, 민음사, 20113, p.682 참조.

주고받는 관계성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존재를 구성하는 다자들이 소통하지 않고 독립된 개체(monad)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창을 열고 상호 존재의 내재적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서로의 변화를 유도하며 새로운 일자를 생성해 간다고 한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궁극자는 절대적 신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y)¹²⁾이다. 현실적 존재자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받아들여 성장과 쇠퇴를 겪으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로서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하여 또 다른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자이다.¹³⁾ 이렇게 현실적 존재자가 존재의 새로움을 거듭하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창조성(Creativity)’¹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창조성을 통해 다자는 또 다른 일자를 생성해 간다. 이때의 일자

12) “현실적 존재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실재적인 사물로서, 지금 이 순간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생기를 의미한다.” Whitehead, Alfred N., *Process and Reality*, Edit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78 참조.

13) 화이트헤드는 이를 내적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내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이루는 두 요소 중 어느 한 요소는 기저에 있으면서 실체적인 개체화를 이루고, 다른 요소들은 개체화를 이루는 한 요소의 활동력으로 인해 통일성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일자로 생성되어 가는 관계를 말한다.”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옮김, 서광사, 2008, p.212 참조.

14)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창조성이란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생과정과 이행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합생과정이란 현실화되어 있는 존재자가 주변에 가 능태로 존재하는 다수를 자신의 내적관계로 수용하여 통일체를 형성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이행과정이란 일단 하나의 통일체로 완성된 현실적 존재자가 또 다시 주체로서의 직접성을 상실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능태 중 하나가 되어 새롭게 생성해가는 다른 현실적 존재자의 생성 여건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합생과정과 이행과정을 겪으며 사물이 새로운 본성을 생성해 가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나채근, 「한국 근대 소설을 통한 한국 풍류정신문화 이해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53 참조.

는 단순한 다자의 결합이 아닌 전에 없었던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이다.¹⁵⁾ 다자가 일자로 되는 과정은 다수성의 상태로 있는 다자가 대비를 거쳐 하나의 단일성을 가진 일자로서 새로운 통일성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¹⁶⁾ 이는 일자가 자신의 내적관계 속에 다자를 수용하여 새로운 일자가 되는 동시에 다자 중 일자로 편입되어 생성 중인 또 다른 일자의 대상으로 수용되는 사건¹⁷⁾을 말한다.

『선학동나그네』에서 소리꾼 여인이 밤새워 힘들여가며 소리를 하는 것은 전에 없던 하나의 사건이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도 변화시켰다. 소리꾼 여인이란 현실적 존재자는 마을사람들이라는 현실적 존재자 나아가 자연이란 현실적 존재자와 상호 관계성을 지니고 소통하였으며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볼 수 없는 그 여인을 보게 한 것은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감응이었고, 이 느낌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란 현실적 존재자들과 내적 관계를 이루며 이전 느낌과 다른 새로운 창조적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리꾼 여인은 자신의 한과 한의 극한에서 오는 체념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소리에 몰입하게 되고 소리의 과정에서 소리와 하나 되는 신명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잊혀졌던 학을 재현시키게 된다.

15) “이때의 일자란 사물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자가 갖는 단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자란 통일성을 획득하려는 일자에게 통합되기 위해 이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건들이다. 이렇게 이점적으로 존재하는 여건들이 통합하는 일자와 연결되는 관계에 놓여 일자의 통일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창조성은 생성된다.” Whitehead, Alfred N., 1978, p.87.

16) 이태호, 「화이트헤드의 상대성원리와 범주도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100.

17) “화이트헤드는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자가 주변의 대상을 자신의 내적관계로 수용하여 새로운 자신을 생성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말한다.” 나체근, 2016, p.53 참조.

“그 여자의 오장이 끊어 오르는 듯한 소리에 … 사내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혀져온 옛날의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학동은 다시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 곳을 끝없이 노닐기 시작했다.”¹⁸⁾

눈이 멀게 됨으로써 생기는 좌절감과, 체념을 통한 현실 수용과, 소리 자체에 몰두하여 생기는 경이로움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때의 감격이나 환희 그리고 흥과 신명은 응어리진 감정과 한으로 인해 더 강한 역량과 강도로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억눌림은 억눌림이 중첩될수록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되면 거침없이 폭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적 신명의 특이성(singularity)인 것이다.

모든 순간은 그때마다 하나의 사건이다. 소리의 소리는 매번 다르다. 서로 다른 소리에 서로 다른 우주와 세계의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을 통해 개인과 우주는 하나가 되고 내면의 실재(reality)는 비상하는 학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학의 비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실화되었던 학은 현재 마을 사람들의 의식에서 살아있는 사건으로 또 다시 현실화된 것이다. 존재와 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면 존재의 안감에 공존하고 있는 무를 간과할 수 없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가수이다. 현재 노래 부르는 가수로 실존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를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단지 존재라는 특이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걸으로 사라졌던 학의 현현은 새로움의 생성 순간이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은 자신이 지닌 모든 한을 해소하고 삶의 에너지를 획득하여 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8) 이청준, 『선학동나그네』, 열림원, 2007, p.134. 이후 텍스트의 인용은 책이름과 페이지 수만 명기함.

“그것은 어딘지 허황하고 기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 여자는 그저 아무 때고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다. 여자의 소리는 언제나 포구 밖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맞추고 있었다. 그것도 마치 성한 눈을 지닌 사람이 바닷물이 차오르는 포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길로 반드시 마루계로 자리를 나 앉아 잡고서였다.” (『선학동나그네』, 128.)

소리꾼 여인은 지금은 바닷물이 사라지고 없는 옛날의 포구에서 밀물이 가득 차오르는 만조 무렵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포구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건너편 관음봉이 물 위로 내려와 한 마리 학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선학동나그네』, 131-132)

이러한 순간의 생성은 고유한 역량을 가진 차이성을 만들어 낸다. 동일성을 전제로 한 차이는 진정한 차이가 아니다. 주어진 동일성 내에서 사물들 간의 유비와 대립을 따져보는 ‘동일성 간의 차이’는 개념적인 차이일 뿐이다. 동일성의 매개 없이 차이 그 자체로 발생하고 증식하고 생성되는 차이야말로 진정한 차이인 것이다. 차이성이야말로 새로운 생성을 통해 창조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창조성으로 나아가는 차이성은 과정에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 존재자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과 동시에 생성한다.¹⁹⁾ 이때 현실적 존재자는 두 양태를 동시에 갖는다. 즉

19) 고목은 “불교의 유식(唯識)학에서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종자(種子)는 찰나에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됨으로써(剎那生滅義) 변화하는 생성과 소멸과정을 끝없이 겪는다고 한다. 사건은 찰나생하고 찰나멸하는 입자들의 고정되거나 불변된 상태에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이되어 생성되어 간다”고 한다. 고목, 『신유식학』, 밀양, 2006, p.59, p.67 참조.

“주체로서 자신의 개체적 활동력을 통해 통일체를 생성하는 일자로서의 현실적 존재자와, 주체로서의 직접성을 상실하고 ‘대상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으로 남아 생성하는 다른 일자의 대상이 되는 자기 초월체(subject-superject)’로서의 현실적 존재자의 양태를 갖는다.”²⁰⁾ 신명이란 두 현실적 존재자의 사이(betweenness)에 존재한다. 합생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가 만족에 이르러 생성의 직접성을 초월하여 대상적 불멸성을 획득하여 자기초월체가 되는 순간에 생성되는 정서인 것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경험하는 주체인 동시에 그 경험의 자기 초월체이다. 그것은 자기 초월적 주체이며, 이 두 측면의 기술은 어느 한 순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²¹⁾

“현실적 존재자는 그 자신의 생성의 직접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대상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는 원자적 피조물인 자기 초월체로서 제각기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있음being>으로 되어온 것인데 모든 <있음>이 모든 <생성becoming>을 위한 가능태라는 것은 모든 <있음>의 본성에 속한다.”²²⁾

모든 ‘있음’이 모든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창조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꾼 여인은 오장이 끊어 오르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의 극한에 도달하면서 주변의 사물들인 현실적 존재자들을 자신의 내적 구조로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물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주변 사물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

20) Whitehead, 1978, p.45.

21) Whitehead, 1978, p.29.

22) Whitehead, 1978, p.45.

이다. 즉 사라졌던 선학을 현현시키며 마을 사람들도 선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내와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학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여인은 밀물 때를 잡아서 노래를 하였다. 소리는 언제나 이 선학동을 옛날의 포구 마을로 변하게 하였고 그 포구에 다시 선학이 유유히 날아오르게 하였다.” (『선학동 나그네』, 134.)

소리꾼 여인이 선학을 현현시킨 저변에는 자신의 한을 체념과 수용으로 승화시킨 새로움이 깔려 있다. 어찌 그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는가? 그녀는 자신의 체념과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눈을 떠서 느낄 수 있는 한정된 인식과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았다. 결국 더 크고 깊은 ‘원초적 감각’으로 우주와 자연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사공간적 교감은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변의 대상인 주막집 사내,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사라져버렸던 모두의 염원인 선학동의 학을 현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즉 소리꾼 여인이라는 현실적 존재자는 또 다른 현실적 존재자인 마을 사람들의 집합인 사회(society)와의 감응에서 형성되는 신명으로 새로운 학의 출현이라는 창조적 새로움을 생성한 것이다.

신명은 이러한 창조적 관계성을 전제로 발생한다. 신명으로 인한 생기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존재자는 합생과정과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한정형식인 기존의 질서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고정되고 불변하는 질서를 넘어서려는 과정에서 이전에 없었던 창조성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IV. 『선학동나그네』에 나타난 신명의 다양체성

주어진 여건이나 접속하는 사건에 따라 매번 새롭게 변이해가는 한국적 신명은, 철학자 들뢰즈(J. Deleuze)가 제시한 다양체적 특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들뢰즈 또한 서양의 실체론적 사유를 거부한다. 그는 기호와 대상의 관계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주체와 대상은 주변 상황과 문맥적 관계에 따라 계열과 배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끝없이 차이(difference)를 생성해 낸다고 한다.

들뢰즈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주체 중심의 사고방식과 이분법적 이항 논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뿌리와 나무로 구성된 수직적 통일성의 구조는 고정적인 일대일 대응구조나 이분법적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보고 리좀(rhizome)²³⁾적 사유에서 생성되는 다양체성(multiplicity)²⁴⁾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 줄기들이 하나의 중심 뿌리 없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형태를 지닌 리좀적 구근(球根)은 이분법적으로 곧게 분기(分岐)하는 것이 아니라 원모양이 되어 측면으로 수없이 갈라져 나가며, 나갈 때마다 새로운 대상과 접속하여 또 다른 배치²⁵⁾를 형성하는 것이다.

23) 들뢰즈의 리좀은 수목적 위계질서를 추구하는 뿌리-나무 구조가 아닌, 수평적으로 뻗어가며 만나는 모든 영역과 접속하여 속성을 변이시켜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들뢰즈·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54 참조.

24) 들뢰즈의 다양체는 “차이가 차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어떤 한 사물의 속성이 중심현상을 이루는 주변의 일자나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진경,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2002, pp.95-97 참조.)을 의미한다. 또는 사물이 관계하는 항에 따라 상호의 관계성 내에서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고 그 때마다 사물의 차원과 본성을 달리해 가는 모양을 다양체라고 한다(들뢰즈·가타리, pp.20-21 참조).

25) 배치(arrangement, agencement)는 들뢰즈에게서 중요한 개념이다. “배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계열화’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계열화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며 연결되는 것이다. 가령 찰리 채플린의 손에 든 빨간 깃발은 그 앞에 지나가는 철근을 실은 트럭과 계열화되었을 때 ‘주의하세요!’라는 경고의

이는 연극에서 사건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주연과 조연의 성질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가령 물은 100°가 되는 순간 액체의 성질을 벗어버리고 기체로 변이되면서 그 차원과 속성을 완전히 달리한다. 더 이상 50°와 50°라는 이질적인 성질의 합(合)으로 나뉘어져 파악되지도 않는다. 물질은 상황에 따라 그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건의 배치 속에서 또 다른 속성으로 계열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학동 그네』에서 소리꾼 여인의 소리를 통해 생성되는 선학은 예전 포구가 생기기 전 선학이 더 이상 아니다. 포구가 막히면서 사라진 선학은 새로운 선학동에서 현현되기 위해 소리꾼 여인의 소리와 접속하는 또 다른 배치를 형성한다.

“연전에 한 여자가 이 동넨 찾아들었지요. 그 여자가 지나간 다음부터 이 고을에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어요……. 헨디 손님도 아마 오래전부터 이 선학동의 비상학 애길 알고 기셨던 모양이지요?” …… 죽었던 학이 다시 날기 시작했다? 안 여자가 이 고을을 찾아들고나서부터?”(『선학동 나그네』, 112)

물질은 부단히 변화되는 배치를 통해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스스로를 차이화시켜 간다. 다양체는 동일성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차이가 그 자체로

표시지만, 끝이어서 찰리의 뒤에 오는 시위대와 계열화되면 ‘공산주의자 리더’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열화는 공시적(共時的)인 차원에서 가능하다. 이 때 공시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계열들을 ‘배치’라고 한다. 가령 둥근 공이 발과 골대와 만나면 축구공이 되고, 다시 발과 네트와 만나면 축구공이 되고, 손과 그물달린 링과 만나면 농구공이 되고, 손과 네트와 만나면 배구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공이 어떤 이웃 항과 접속하느냐에 따라 공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다. 배치라는 개념은 ‘사건’과 계열화하는 달리 어떤 개개의 항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연결된 전체를 포착하려는 개념이다.” 이진경, 2002, pp.58-60 참조.

서의 의미를 온전히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리즘적 다양성은 사물이 하나의 동일한 중심이나 고정된 원리로 환원되지 않고 자체적인 성질을 차이성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의 속성의 추가는 기존의 동일성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전체 의미를 변화시키는 다양성이다. 이는 “자물쇠의 위치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침실의 배치는 감옥의 배치로 바뀌는 것”²⁶⁾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접촉되는 항에 따라 새로운 차원과 본성상의 변화를 겪는다면 그 물질은 다양체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선학동 나그네』에서 소리꾼 여인이 떠나가고 포구가 마른 들판으로 변해버린 후 관음봉은 학이 되어 물위를 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선학의 존재나 소리꾼 여인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꾼 여인은 수 년 만에 불쑥 다시 마을을 찾았고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하고는 아버지의 유골을 마을에 수습한 후 또 다시 떠나가 버렸다. 이후 선학동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전의 포구는 다시 새로운 포구로 변이되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선학이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끝없이 포구 위를 노닐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가 그렇게 선학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 소리가 귓전을 울려올 때마다 선학동은 다시 포구가 되었고, 그녀의 소리는 한 마리 선학과 함께 물 위를 노닐었다.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 마리 학이 되어 선학동 포구 물 위를 끝없이 노닐었다.” (『선학동 나그네』, 135.)

사물은 사물 자체가 지닌 실제적 속성으로 정의될 때가 아닌 사물이 속

26) 이진경, 2002, pp.95-97.

한 상황의 관계성 내에서 스스로의 성질을 바꾸어 나갈 때 창조성과 다양체성을 지닌다. 실제로 사물은 재현되는 실제적 동일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로 사물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차이성이 공존한다. 석양의 붉은 노을에는 겉으로 표상되는 붉음 속에 수없는 종류의 서로 다른 붉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성은 신명에도 존재하고 있다. 여자가 밤새 오장이 끓어오를 듯한 신명을 다하는 소리의 모습은 단순히 동일성을 지니고 재현되고 표상된 소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 소리 속에는 여자의 간절한 ‘학되기’를 소망하는 염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학을 염원하는 그 진정성을 지닌 마음의 울림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파동처럼 전달되어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마음 속에 포구 위를 노니는 한 마리 선학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선학동나그네』, pp.134-135) 신명은 구조화되고 고정된 자기동일성이 아닌 주어진 여건에 따라 무수한 차이를 생성해내는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명은 스스로를 변형시켜가는 차이와, 차이를 대비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성으로 생성해내는 다양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명은 짓눌렸던 일상의 억압과 고뇌를 넘어 기쁨과 해방의 영역을 열어 준다. 비록 신명 내에 혼란과 무질서가 엄존하지만 이를 질서있게 재편하려는 조화로움이 내재되어 있다.²⁷⁾ 이는 신명이 기본적으로 푸는 문화²⁸⁾라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리 주변에는 ‘화풀이’ ‘분풀이’ 같은

27) 최준식은 “이를 한국의 전통적인 무교의 영향이라고 본다.” 최준식, 앞의 책, pp.35-37.

28) 김현희는 ‘풀다’의 의미를 ‘씻김’으로 설명한다. ‘씻김’과 ‘흫’ 그리고 그 풀이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씻김’을 제시한다. “삭임이 고독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초극이라면, 씻김은 개인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일정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풀이에는 긍정적 의미

푼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다. 긴장도, 오해도, 기분도 풀어야 한다. 이렇게 풀 것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맺힌 것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맺혀서 느껴지는 정서를 우리는 ‘한’이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한을 푸는 과정에 신명이 작용하는 셈이다. 억눌리고 응어리졌던 한을 해소시키면 체념과 왓지 모를 허허로움과 안정감이 찾아 들고 동시에 새로운 힘과 느낌이 분출하여 내재된 기운이 창조적 생명력으로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길손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 뭐 다 부질없는 일이지요. 당신 생전에 지어 묻힌 한인데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대로 그냥 떠나고 말겠소…….”(『선학동 나그네』, 135.)

“사내는 그때 그런 몽롱한 마음가짐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사내가 다시 눈을 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턴가 백학 한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다.”(『선학동 나그네』, PP. 146-7.)

소리꾼 여인이 밤새껏 소리를 하면서 한을 씻어내며 도달한 경지는 자신의 내면적 영혼의 궁극적 실재와 외면적 여건의 접촉에서 오는 배치로 구체화된다. 내면적 정서의 궁극적 경계에서 형성되는 신명을 통해 새로운 카오스는 기존의 코스모스와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카오스모스(chaosmos)의 장(field)을 이루고 그 장 안에서 여인의 정서는 평온하게 잦아든다. 동

의 풀이(이완과 화해)와 부정적 의미의 풀이(한의 전이, 복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의 승화나 초극이든, 한의 풀이이든 그것의 미적 윤리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은 ‘씻김’이라고 생각된다.” 김현희, p.37.

시에 이전과 달리 재편된 마을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새로운 선학동이 자리를 잡고 평온과 허허로운 공간이 형성된다.

그러나 신명의 속성 상 체념과 허허로움은 이내 새로운 사건과 접속하여 또 다른 배치로 변이되어 간다. 이러한 창조적 생명력을 지닌 신명은 판소리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판소리의 명창은 종종 고수와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망아경에 빠져들어 즉흥적인 가락을 뽑아낸다. 이러한 현상은 고(故) 김명환 고수의 말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난다.

“명창들 소리에 앵겨서 칠 때는 내가 쳐봐도 생전 모른 가락, 느닷없이 가락이 어찌 금시, 일초라니, 반초도 못 되어서 생각이 나고 가락이 된다 그 말이여. 그것 나중에 해 볼 라면 잊어 부러, 없어... 기가 맥힌 놈이 나왔는데 그런 놈 녹음이라도 히 놓으면 좋은디 그냥 곧 돌아서 고놈 히 볼 라면 안돼요.”²⁹⁾

김명환 고수가 만들어 냈던 가락이 다름 아닌 새로운 배치를 통한 다양체의 모습이다. 신명은 고수와 장구와 무대와 청중과 공연 분위기가 접속과 변이를 거쳐 새로운 가락을 생성해 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청중 역시 그 소리에 감화되어 명창과 고수는 하나가 되어 최고조에 이른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 속에서 생성되는 신명은 양방향성을 가진다. 즉 서로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vector)의 특성을 지닌다. 내적으로 향하는 신명은 의식의 몰입과 망아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향하는 신명은 자신의 응어리진 한을 외부로 투사시켜

29) 최준식, 앞의 책, p.150.

풀어냄으로서 외부의 대상과 조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처럼 신명은 정태적이지 않다. 각각의 방향성을 지니는 느낌이나 인식의 요소인 신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건과 접촉하고 변이되어 또 다른 배치물인 사건을 형성한다. 사건은 사건대로 상호 관계성을 지니며 또 다른 의미를 형성해 가는데, 이러한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는 그 강도상의 다양체적 차이를 형성하면서 한국적인 신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V. 결 론

한국적 신명은 고대 부족 국가이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를 거쳐 오며 새로운 상황과 접촉하고 변이하면서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거듭하여 왔다. 즉 신명은 역사적으로 신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제천의식, 신라 국가이념의 토대를 형성한 화랑도 정신, 고려 불교 국가의 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팔관회, 조선의 안빈낙도와 초연한 삶, 실용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적 기풍, 근대의 체념과 좌절을 넘어서 희망과 긍정의 조화 등으로 탈영토화되면서 동시에 영토화되었고 그때마다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정신과 정서의 바탕을 구성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현재 생성된 신명은 앞으로도 고정되지³⁰⁾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의 핵심적 속성이다.

30) “고정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달하면 분자 활동이 정지되는 열평형상태가 되어 사물은 고정되고 죽음에 도달한다.” 나채근, 「시어더어 드라이저의 엔트로피적 비전」, 『신영어영문학』 제19집, 신영어영문학회, 2001, pp.36-37.

신명은 끊임없이 접속하는 주변의 대상과 내적 관계를 형성하고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거듭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입자들의 연속이다. 아무런 형식을 부여받지 않고 유목(nomad)적인 성격으로 물처럼 바람처럼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다. 이전의 배치에서 벗어나 탈주선을 그리며 새로운 배치를 만드는 흐름과 변화의 과정에서 신명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나 방법을 창안해내는 창조성과 다양체적 성격을 구체화시킨다.

『선학동 나그네』에서 신명을 체화하고 있는 소리꾼 여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입자이며 흐름의 특성을 지닌다. 그녀는 선학이 사라지기 전 이미 아비와 마을을 찾았다가 홀연히 떠났으며, 세월이 흐른 후 아비의 유골을 들고 돌아왔으나 밤새껏 소리를 한 후 다시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는 고갯마루를 넘어 하늘 높이 나는 한 마리 선학으로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주막집 사내의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리꾼 여인 자체가 아니라 소리꾼 여인이란 분자(分子) 구조를 구성하는 본질적 내적 요소인 원자(原子), 즉 신명의 특성이다. 소리꾼 여인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변이해가는 추동력은 신명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명은 이접적인 다자를 통해 연접적인 일자로 생성되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를 생성해내는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즉 신명은 새로운 대상과 접속하여 대상과 내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전과 다른 새로운 속성을 지닌 신명으로 거듭 생성되는 것이다. 신명은 또한 접속과 변이를 통한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가는 들뢰즈의 다양체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층(layer)과 지층(strata) 사이의 웃지층과 사이층에 위치하면서 성층작용을

이루며 변해가는 지층처럼 신명도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불안정한 입자들이 분자구조를 새롭게 하며 안정적인 입자로 현실화되지만 또 다시 다른 구조로 변이와 생성을 거듭하는 배치를 신명은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명은 흐름(flow)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흐르다가 멈추는가 하면 그 본성상 또다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신명은 사·공간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표현해왔던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명은 하나의 형상으로 실체화되는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생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되어 갈 것이다.

【참고문헌】

- 고목, 『신유식학』, 밀양, 2006.
- 김범부, 풍류정신과 신라문화, 『한국사상총서』, 한국사상연구회, 경인문화사, 1973, pp.221-231.
- 김현희, 「한, 씻김, 신명, 흰그늘」, 『민족미학』, 제6집, 민족미학회, 2007, pp.33-64.
- 나채근, 「시어더어 드라이저의 엔트로피적 비전」, 『신영어영문학』 제19집, 신영어영문학회, 2001, pp.36-37.
- _____, 「한국 근대 소설을 통한 한국 풍류정신문화 이해 교육 연구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니체 프리드리히, 장희창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민음사, 2004.
- 들뢰즈 ·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1994.
- _____,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2002.
- 이태호, 「화이트헤드의 상대성원리와 범주도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_____, 「불교와 화이트헤드 철학의 존재론」, 『동아시아 불교문화』, 제2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8, p.322.
- 이청준, 『선학동나그네』, 서울: 열림원, 2007.
- 최상진,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1, pp.339-350.
-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소나무, 2002.
- 한민 · 한성열, 『신명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09.
-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 문화연구』 제1집, 한민족문화학회, 1996, pp.217-255.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한길사, 2002.
- 화이트헤드, A. N., 화이트헤드, 오영환 옮김,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2008.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 옮김, 『과정과 실재』, 민음사, 2013.
- Deleuze, G., Guattari, F., *A Thousand Plateaus*, Translation and foreword by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Whitehead, Alfred N., *Process and Reality*, Edit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Whitehead, Alfred N., *Adventure of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ity and the Multiplicity of Korean
Shinmyoung(神明) Manifested in Modern Korean Novel

Ra, Chae-kun · Roh, Sang-rae

Shinmyoung is an intrinsic attribute of the Pungryu Spiritual Culture which has been original Korean spiritual and emotional culture. It has been creating the peculiar Korean emo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in history. Korean Shinmyoung that has property of overcoming Han(恨) and recuperating the wounded self-esteem elicits inner vitality from fixed frame and order, and plays a role of constituting creative liveliness of new life beyond the suppressed feelings in this world.

This Shinmyoung is similar to the ‘creativity’ of Whitehead and the ‘multiplicity’ of Deleuze. That is to say Shinmyoung is composed of the creative characteristic of ‘actual entity’ making new ‘one’ existence from ‘many’ existence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ultimate principle of change, and the multiplicity made by new arrangement which the accidental conjunction and the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entities are creating.

This paper is designed to clarify how the intrinsic property of Korean Shinmyoung possessing the creativity and multiplicity appears in 『선학동나그네』 which describe persuasively Koreans’ singular emotion and life. This paper is also going to present that Shinmyoung is a flow running all directions like water and winn and creating new reality different from before through the singing woman in 『선학동나그네』. This study will also shed new light on the fact that Shinmyoung has represented the Korean’s spirit and emotion with various ways through a series of times and places by confirming the property of Shinmyoung in 『선학동나그네』.

Key Word: Shinmyoung, Pungryu Spiritual Culture, creativity, multiplicity,
actual entity, modern Korean novels

나채근

소속: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외래교수

전자우편: cknah@hanmail.net

노상래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yunc82@ynu.ac.kr

<p>이 논문은 201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p>
--